

# 우리사회 성문화와 성교육의 방향

최 영 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I. 들어가는 글

현재 우리 사회는 성에 관한 기사와 가십거리가 넘쳐나고, 청소년을 성인물 예로 배우로 출연시키는 일련의 영화, 연극이 성행한다. 또한 유흥산업에 유입되는 청소년의 수는 증가 일로에 있고 연령은 갈수록 연소화되고 있다. 유명탤런트들의 개인적 성행위를 담은 불법 비디오 시비와 소문이 끊이지 않고 날이 갈수록 성을 상품화하는 광고는 고객 연령대를 상관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쏟아진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억압되어온 성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미명아래 왜곡된 성정보 잡지와 성담론이 난무한다.

이렇듯 성적 자극으로 넘쳐나는 사회 환경과 인터넷 음란물의 범람은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이나 성규범의 혼란을 가중시켜 청소년의 성문제와 성폭력 문제를 급증시키고 있다. 또한 일명 '원조교제'라는 어이없는 이름으로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교육은 여전히 보건학적인 지식 전달에 머물고 있고 성교육 전문 교사 체제가 아닌 일반 교과목 담당교사가 관련 교과목 시간에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일반적으로 한 학기 6시간 내외로 배당된 성교육 시간에 비디오나 특강 형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보도 될 때마다 청소년 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청소년들의 성문란을 우려하며 더 이상 청소년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야단이지만 정작 학교 제도권에서의 변화는 느리기만 하다. 그나마 교육부에 98년부터 여성정책관실이 마련되고 '성교육자문위원회'를 결성하여 성교육에 대한 고민과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의 변화가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초, 중, 고 성교육 상담교사 교육에 선생님들의 참여도와 열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내일への 희망을 엿보게 한다.

당면 과제는 성교육을 누가 어떠한 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청소년 성문화의 근간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 성문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사회 성문화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성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한국사회 성문화 특성

### A. 가부장적 성문화 전통 : 금기와 이중적 성윤리

현재 우리사회의 전통적 성문화는 조선시대에 확립된 유교적 성문화와 성윤리라고 할 수 있다. 유교적 성문화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을 억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성 금기적 성인식이며, 또 하나는 남녀의 성에 대해 다른 규범을 적용하는 이중적 성윤리이다.

#### 1) 금기적 성문화

유교에서는 성은 오직 생명출산을 위한 행위이자 혈통의 순수성과 가문 유지의 방편일 뿐이다. 유교의 경전 <서경>에서는 여성을 여색으로 간주하고 남성이 덕치를 하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위주의 성인식은 조선시대 500년을 통해 성을 은밀하고 부끄러운 영역으로 상정, 심지어는 불결하다는 성인식을 확고히 뿌리내리게 하였으며 현대산업사회인 오늘날까지도 보편적 성인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성은 늘상 비공식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나누는 사적인 주제로 회자되고 있을 뿐 공식적 영역에서의 공적인 주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성을 금기시하는 유교적 성문화는 공식적인 교육현장에서도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가치관을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사실상 보건학 수준에서 그것도 일년에 6시간 내외 정도의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은 성에 대해 무관심하고 모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아이들은 성에 대해 배타적·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거나 필요이상의 과도한 흥미를 갖게 되는 극단적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 2) 이중적 성윤리

유교적 성문화의 또 하나의 특성은 여성과 남성에게 대해 이중적으로 적용하는 성윤리이다. 이중적 성윤리는 유교의 남존여비적 여성관과 조선시대의 정치적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창출된 정절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진 윤리이다. 유교의 여성관은 기본적으로 남존여비의 성차별적 여성관이다. 유교의 경전인 <주역>의 근본 원리는 자연과 인간, 여자와 남자를 음양으로 대칭시키고 있으며, 양이 음을 다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남자는 우주창조의 근원으로 하늘에 비유되고 여자는 땅으로 비유, 하늘보다 못한 존재이며 소극성·순종성의 상징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 성윤리가 강화, 확립 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시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창출된 정절이데올로기에 의해서이다.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사회로 혈통의 순수성, 가문의 도덕적 우월성은 양반계급의 절대적 요건이었다. 따라서 사대부집 여성의 재가를 막기 위해 재가녀 자손금지법(1485)을 제정하고 정절이데올로기를 정착, 강화시키기 위한 유인책을 만들어내었다. 열녀가 나오면 몰락한 양반에게는 가문 재가의 기회를 주었고 양인에게는 호역의 부담을 제해 주었으며 천민은 면천하여 신분상승의 기회를 주었다. 이를 통해 정절이데올로기는 사대부집 여성뿐 아니라 일반 모든 여성의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정절이데올로기는 조선조 여성들의 교육서인 <내훈서> 등을 통해 철저하게 내면화되었는데 우리사회의 순결이데올로기는 바로 이 정절이데올로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성윤리와 금기적 성인식을 근간으로 하는 유교적 성문화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파생시키고 성폭력 범죄와 성문제를 야기시키는 주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인식은 본성적으로 남성의 성욕은 여성의 성욕보다 훨씬 강하며 남성의 성욕은 통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또한 출산위주의 성인식은 상호적, 인격적 교류행위로서의 성이 아닌 생리적, 신체적 측면만이 강조되는 성기중심적 성관계를 형성시키고 남성본위적 성관계 관습을 정착시켰다.

이러한 잘못된 신화와 성인식은 매춘을 필요악으로 합리화시키고 성폭력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폭력범죄로서가 아니라 성충동에 의해 발생된 성문제로 바라보게 만든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발생원인을 여성에게서 찾아내려는 피해자유발론을 정당화시키며 성행위가 신체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을 성관계의 일종으로 취급, 성폭력 피해여성을 순결을 상실한 여성으로 간주하고 비난한다. 이로 인해 피해여성이 도리어 피해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성폭력범죄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 B. 서구의 성문화 : 성개방과 자유화

인터넷 등의 컴퓨터 및 통신매체의 발달,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문물 개방구조, 세계여행의 보편화 등의 상황에 의해 서구사회의 성개방과 성자유화 풍조는 건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상업주의에 의해 퇴폐적·폭력적인 저급한 서구의 성문화가 유입됨으로써 서구의 성개방과 성자유화의 한 단면만을 전체로 부각시켜 성문란과 방종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서구의 성문화가 우리 사회의 전통적 성문화와 맞물리면서 혼란과 아노미적 성문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성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나 가치관을 정립하기 어려운 젊은 세대들의 성인식과 행동양식에 더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가족성상담소, 1996) 결혼 전에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74.4%에 이르며, 혼전 성관계에 대한 여대생의 태도 조사(동아일보, 1995)에 의하면 44.8%가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우리사회 전통적 성문화와 성의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서구의 성개방, 자유화 물결은 여성에게 성적 자유를 주었다기보다 도리어 전통적인 이중적 성윤리와 여성차별 전통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한 연구에 의하면(이대 여성연구소, 1992) 남성은 혼전에 85.6% 성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남성의 경우 63.6%가 결혼 후 아내 이외의 여성과 성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혼외정사 경험은 남성이 여성보다 몇 배 높으며 미혼모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한국여성개발원,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1984). 그러나 여전히 미혼부는 사회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 한해 신생아 수는 60만인데 반

해 낙태는 120만~150만에 이르며 이중 미혼여성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갈수록 성과 사랑이 분리될 수 있다는 쾌락위주의 성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한 쾌락위주의 성인식을 갖고있는 반면, 여성은 여전히 전통적 순결관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성금기적 성문화와 성자유 풍조, 개방화 풍토가 양극화되면서 미혼남녀의 성의식에 혼란이 가중되어 여성은 더 큰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C. 남성중심적 성의 상품화

현재 우리사회의 성문화의 또 하나의 특성은 성의 상품화이다.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9세기부터 성의 상품화 현상이 시작되었고 20세기에 와서는 다양한 신종 성산업이 번창하였다. 한국에서도 성의 상품화 현상이 근래에 와서 더 급진전되었고 특히 향락산업이 기형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성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 성금기적, 억압적 성문화는 역으로 성을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될 수 있는 토양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성상품에는 직접적으로 성을 팔고 사는 상품과 성을 소재로 한 각종 음란비디오, 만화, 잡지류의 직접 행위하지 않고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보는 성'의 상품화가 있다.

그리고 '보는 성'의 구매자는 주로 청소년이다. 한 조사(YMCA,1990)에 의하면 국민학생의 71.1%가 한달에 한 번 이상 스포츠 신문을 읽으며 남자 중학생의 96%, 남자 고등학생의 85%가 스포츠 신문을 애독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고교생 74.4%와 재수생 69.2%가 음란서적을 소지한 적이

있으며 성인용 비디오는 중고교생의 60%가 1번 이상 본 적이 있고, 10번 이상 본 학생도 7.95%에 이르고 있다.

직접적인 성상품인 매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은 전국에 120~15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 숫자는 15~29세 사이의 여성인구의 5명중 1명이 성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춘의 종류는 사창가 매춘여성, 호스티스, 카페티스, 비밀요정 기생, 스트립 걸, 면도사, 안마사 등의 각종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향락산업은 1980년 조사에 의하면 향락업소의 총수는 최소한 30~40만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총연간 매출액은 4조원에 달하며 국민총생산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러한 성의 상품화의 만연은 청소년의 성인식 형성과 우리사회 전반적 성문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품화되는 성의 모습은 쾌락적, 가학적, 퇴폐적 성으로 주로 그려지기 때문에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취급하는 가부장적 성문화를 심화시키고 여성의 인격을 성적 상품으로 비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각종 소비상품과 광고는 여성의 성적매력과 에로티시즘을 부각시켜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사물, 이미지 또는 익명의 성적대상이 되게 한다.

따라서 성의 상품화는 성을 상호적, 인격적 교류가 아닌 쾌락을 추구하는 도구로 인식시키고 상대방을 객체화, 물상화, 도구화시키는 잘못된 성인식과 성행태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성의 상품화는 끊임없이 성충동을 자극하고 성에 대한 과도한 환상과 신비화를 조작, 조장하며 성쾌락 추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간주되고 성에 대한 맹목적 숭배를 조장한다. 이로 인해 성의 자유화는 성적유흥과 오락을 즐기고 성산업이 자극하는 성문란 행위 흉내와 동일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양산하여 많은 청소년범죄와 성문제를 야기시키고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성문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성범죄와 성문제의 주요 요인이 되

고 있다.

### III.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성 정립 및 쟁점

#### A.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학교 성교육의 경우 성교육 전문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가 모두 상담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상존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범대학, 교원대학 교과과정에 성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설정해야 하며 더 나아가 교사 임용 고시 과목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여기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장, 단기 계획과 구체적 실행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 B.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

청소년 성교육의 핵심 과제는 어떠한 관점에서 실행해야 하는가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성인식은 대체적으로 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지나친 호기심과 탐닉적 성인식으로 양분되어 있다. 또한 성폭력의 문제는 성에 대한 방어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성이란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의사소통의 매개체이며 상호 존중적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기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적, 탐닉적 성인식은 결과적으로 남녀관계를 불신과 적대관계에 놓이게 하거나 정복과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러므로 성교육의 기본적 관점은 성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성교육이란 성에 관한 교육에 국한 될 수 없는 전인적 교육 즉, 인성 교육의 일환이라는 관점이 세워져야한다. 따라서 성교육은 성평등 문화 구축의 기본적 토양이자 새로운 성문화 운동이라는 운동적 관점도 요구된다 하겠다.



여기서 제기되는 성교육의 실제적 쟁점은 청소년의 성욕, 성적 관심, 성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문제는 청소년의 성적 주체성과 책임성 그리고 자율성이라는 방향 설정과 어떻게 맞물리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여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나름대로의 관점을 정립할 시기이다.

### C.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 1) 정확한 성지식과 성정보를 주어야 한다.

연령별 단계에 따른 생리학, 보건학적 지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생리적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뿐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 예컨대 생리에 대한 기존의 사회, 문화적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긍정적 태도와 사고를 길러주어야 한다. 출산의 과정이나 임신의 과정 설명에서도 기존의 회피적, 추상적 차원에서의 교육이 아닌 구체적 설명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 2) 가치관 교육이 되어야 한다(성적 주체성, 책임성, 관계성).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동적 대상으로 설정되어서는 안되며 청소년 스스로 성에 대한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전통적 순결교육으로 인해 여성의 성은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결혼할 상대방을 위한 예물처럼 이해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또한 전통적 성역할의 답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행동이나 성적 태도가 갖는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성평등적 성행동과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성적 책임성의 문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숙지해야 할 문제이지만 특히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인식을 길러주는 것은 미혼모의 증가, 낙태의 문제와 더불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이 남

성의 전유물처럼 되어온 우리사회에서 성이 쾌락이나 정복, 소유의 문제가 아니 관계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 **3) 비판력,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

무수히 쏟아지는 성정보와 자극사이에서 스스로의 판단력과 분별력 그리고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손쉽게 대중적 선동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성적 방종을 성적 억압에서의 해방, 자유로운 성과 동일시하거나 왜곡시키는 무수한 담론들 사이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만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 **D.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 1) 아이들의 문제에서 출발하자.
- 2) 스스로가 찾아내는 방식을 택하자.
- 3)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자.  
(토론, 모둠, 캠프, 비디오, 영화, 연극, 미술, 음악)
- 4) 당시의 성 관련 이슈에 관한 문제를 짚어가자.  
(예: 빨간 마후라, 오양 비디오, 거짓말...등)
- 5) 남녀 모두 상대 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주제가 다루어져야 한다.